

깨끗한 가슴과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해치우기 바라는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할 일들을 하나씩 따로 카드에 기록합니다. 우선 순위대로 정리한 다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함께 창의적으로 기쁘게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매우 만족스럽지요. 일 목록에서 하나씩 떨어 나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

어떤 방법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 잃음, 충돌, 혼동일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큰 것이 내 앞에 놓이면 우리는 포기하곤 합니다. 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느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조차 없게 되곤 합니다. 몇 년 전 깊은 체험을 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궁지 앞에 꼼짝 못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마감 시간은 닥쳐오고 프란치스칸적 해결 방법이 없는 듯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를 계속 자문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인과의 상의했지만, 갇힌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저는 초짜 새 봉사자였고, 새 평의회는 첫 방문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방문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문 당일, 방문자는 평의회원 한 사람씩 만나기를 청했고, 제가 당연히 첫째로 만나야 됨을 알았지요.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함께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방문자는 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젠, 어떻게 지내요?’라는 한 마디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쏟아 부었고, 방문자는 동정스럽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의 말이 마치자, 저를 바로 쳐다 보며, ‘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와 닿았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 답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필요했던 것은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를 이러한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온갖 장애를 멀리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그분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흠숭하도록 하십시오.”¹



깨끗한 마음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² 기도는 계속했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느님이었을까요, 나 자신이었을까요? 깨끗한 마음은 스스로의 이미지, 걱정, 방어본능 등 자아를 우리 마음에서 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가 열쇠입니다. 내 생각과 자문, 자의, 두려움 등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해 졌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의 인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¹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2. 25-31

² 인준받은 수도규칙 10.8

깨끗한 마음은 새롭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줍니다. 저는 하느님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서 온 지상적인 것들의 참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깨끗합니다. 이 상황의 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신 성령의 활동을 보고서야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날부터 “마음의 깨끗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대한 저의 이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성인의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와 인준받은 회칙의 ‘오히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갈망해야 할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곧,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에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칙에도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³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 주 전 한자 슬기로울 혜(慧)와 깨끗한 마음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혜(慧)는 위의 빗자루(扫)와 아래 마음(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쓸어내지요. 진정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⁴

“우리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자들과 영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더욱 단순한 자들, 겸허한 자들,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³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12

⁴ 마태오 5:8